가정은 인간생존의 근본이다.

金 淑 喜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장

가정은 만드는(Make) 것이 아니라 생존의 결과로 되어지는(Becoming)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홀로 살지 못하며 홀로 살았다면 인간의 존재는 지구상에서 일찍이 사라졌다. 만든다는 것은 인위적인 부자연스러움이 있을 수 있고, 되었다는 자연스런 순리를 따랐다는 생각이다. 가정은 남녀가 모여서 사랑하고 화목하면 자연히 이루어진다. 여자는 아기를 낳고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며 아기는 여자와 남자가 함께 양육하는 것이 인간 삶의 근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동물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은 인간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가정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가정과 동물의 가정의 차이는 인간은 조상을 기리며 일련의 가정의 계보를 지켜내려 오는 삶을 영위한다. 조상은 현존하는 인류의 과거이며 그 과거를 기억 속에 간직하며 그 과거에 뿌리를 두고 현재와 미래를 예견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은 역사적인 존

재이며 문화를 가지고 있다. 동물의 가정은 한때 잠시 모여서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자기 먹이를 구해서 먹을 수 있게 될 때까지 훈련을 시켜서 독립하면 그 가정은 헤어진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는 이혼율이 세계 2위로 치 솟아서 가정이 붕괴되고, 아기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를 기록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존폐에 위기를 초래한다고 위협을 느끼고 있다.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졌나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여야 한다.

우리사회는 과거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지향하였다. 그 결과 우리들의 경제 지표인 GNP에 따르면 경제 성장은 30여 년 동안에 거의 100배의 성장을 하였다. 1960년 초에 우리의 GNP는 겨우 100불 미만이었다. 그런데 1996년에 10,000불을 돌파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동안에 물질 제일주의를 능가 할 수 있는 도덕 또는 정서의 함양은 미약하였다고 본다. 이에 정치권의 권력과 금력의 싸움은 모든 사람들을 실망케 하였으며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부패와 부조리 현상을 바라다보는 시각은 점진적인 단계별 성장을 하는 인내심보다는 무책임과 한탕주의를 일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속출하였다. 한편 고학력 여성의 사회진출기회의 확대 속도는 완만하였고 이들의 가사 수행을 포함한 전문분야에서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인색하였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젊은 계층에서는 가정을 영위해 나가고 가족간의 화목을 유지하고 인내심과 어른께 복종함으로써 가정의 규범을 지켜보려는 생각보다는 효율을 중시한다는 졸속함이 성급한 결단을 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가정은 가족이 모여서
> 가족 각자가 가진 자기의 탈렌트를
> 최대로 발휘하도록
> 모든 지원과 용기와 위로를
> 그리고 휴식을 주는 곳이다.

오늘의 한국의 사회는 여성의 사회진출의 기회를 국회의 의원 수 늘리기, 직장에서 산후 휴가 기간 늘리기, 성희롱 처벌 강화 등등 다양한 여성 권익 보호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여성들은 모든 면에서 남녀 공히 50/50으로 나누어서 짐도 책임도 그리고 가사를 비롯한 노동도 평등하고 공평하게 하자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날, 그리고 가정의 날 등등 가정을 생각하는 달이다. 가정은 가족이 모여서 가족 각자가 가진 자기의 탈렌트를 최대로 발휘하도록 모든 지원과 용기와 위로를 그리고 휴식을 주는 곳이다. 그

래서 가족 각자가 항상 감사와 든든함을 느끼면서 자기 일에 정진하며 사는 곳이 가정인 것이다. 가정은 인위적인 조직으로 시작하지만 가정의 운영은 자연스럽게 순리로 되어야 한다. 가정 내에서는 긴장이 없어야 하고 모든 가족이 편안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만이라도 가족간에는 서로 자유로워야한다. 자유롭다는 말은 서로 조건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다. 미국 말로 "It is free." 하면 이는 거저라는 뜻이 된다. 이처럼 서로가 자유스럽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족간에는 경쟁도 성립이 안될뿐더러 경쟁이 있을 수 없다. 가족들이 그저 저대로 살아가는 곳이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은 법으로 또는 인위적인 사회 제도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도움이 될 뿐이지 가정의 근본적인 흐름은 순리밖에 없다. 순리만이 사랑으로 통한다고 생각한다.

2004년 5월 가정의 달에 편안함을 주고 휴식을 할 수 있고 다음 일을 위해서 재충전이 되는 이전보다 더욱 Sweet한 Sweet Home 만들기에 우리들 모두 노력할 것을 다짐해야겠다.